

경제

건설·설비 투자 멈췄다

설비와 건설투자가 올들어 9월까지 사실상 '제로' 상태에 빠져들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설비·건설투자 감소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인 파장이 깊고 길게 발생하게 된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건설투자액 증가율은 올들어 9월 까지 사실상 '제로'상태를 나타냈고 민간분야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 국내기계 수주액은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97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9월까지 투자 증가율 0.4% ... 사실상 제로 상태

기계 수주액 97년 이후 최악 ... 성장 잠재력 타격

◇설비·건설투자액 증가율 제로 =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설비·건설투자액은 실질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인 4.4%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은 2000년에 15.2%를 기록했으나 2001년 -2.9%로 돌아섰다. 이어 ▲2002년 5.1% ▲2003년 4.1% ▲2004년 3.6% ▲2005년 1.3% ▲2006년 2.6% 등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1~9월에 2.3% 늘어나 작년 같은 기간의 8.0%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4년 4.3%, 2005년 3.9%, 2006년 8.7%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올해 가파르게 둔화됐다. 건설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가 줄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3년 7.8%에 이르렀으나 2004년

9월 건설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4%가 줄었다. 공공부문은 7.8%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59.9%나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50.4%, 주택 70.8%, 발전·송전 71.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잠재력 악화 - "미래가 안 보인다" = 각종 투자가 위축된 것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규제가 많은 제도적 측면, 경기 침체, 기업가 정신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하면 당장 경제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민간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마저 나빠지면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설비투자가 둔화되면 미래의 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향후 다가올 호황에 대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다. /연합뉴스

건설사 '대주단 협약' 신청 무기한 연장

오늘 업체 관계자 200여명 설명회 ... 80개사 가입 예측

정부와 은행들이 일찍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의 대주단 조기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18일 건설업체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주단 협약 가입의 장점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 임시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한 곳은 없지만 주

권은행이 개별 건설사를 접촉해 권유하고 있는 만큼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대주단 협약이 살생부로 잘못 알려지면서 건설사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 대주단 가입은 은행들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는 상생부"라며 "정부는 은행과 함께 건설사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애초 17일을 1차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가입을 독려했지만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 가입시

경영권 유지 문제와 비자발적인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대주단에 가입하면 사의 평판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임 처장은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이 부진함에 따라 집단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마감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가입을 원하는 건설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여부는 은행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가 대주단에 가입하면 1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은행권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퇴출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재무상태가 좋아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사는 100대 업체 가운데 1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에 가입 신청을 할 건설사는 80개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30여 개 건설사가 은행에 가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가 심해 막판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0만 희망 담아 경제 살리자'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주시 새마을회(회장 김동기) 소속 지역별 지도자들이 17일 남구 월산동 새마을회관에서 '100만 희망 담기' 저금통 릴레이 출정식을 갖고 동진 모으기 운동에 돌입했다. 지도자들은 이어 광주 시내에서 '경제 살리기 모자보자 국민대행진' 캠페인을 펼쳤다. /L광주기자 mjna@kwangju.co.kr

시중銀 펀드 판매 수수료 인하

韓銀 유동성 1조 더 풀다

신한·우리 판매 보수 20%씩 ↓ ... 국민·하나銀도 검토

시중은행들이 펀드 가입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잇따라 펀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7일 주식형 펀드 7종류에 대해 판매 보수를 20%씩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대상은 신한BNP자산운용과 SH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판매 금액이 약 100억원 이상인 주식형펀드이다. 예컨대 '탐스 프리미엄 주식 펀드'는 기존 연 1.61%에

서 연 1.29%로, 봉투저 일본 알파 주식 펀드는 0.85%에서 0.68%로 각각 인하한다. 아울러 기존 해외펀드와 관련해 선물환 계약을 한 고객 가운데 선물환 차액 정산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선물환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3개월 양도성에증서(CD) 금리 수준이며 최장 3년까지 제공된다. 우리은행도 앞으로 신규 출시되

는 펀드에 대해 수수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 투자기간별로 펀드 수수료를 차등적용해 장기 투자할수록 펀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펀드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단독 판매 펀드 또는 판매 비중이 높은 펀드를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기존 펀드에 대해 판매 보수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역시 펀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1조원어치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채권시장의 안정과 환매조건부(RP) 매각 대상증권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승증권은 국고채권 3년물, 5년물, 10년물이다. 입찰은 19일 오전 10시 대금 결제일은 21일이다. 한은이 시장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는 것은 작년 11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집단소송·당국 규제 ... 증권사 긴장

투자·인증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자 증권사들이 긴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하나대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집단소송 위험을 줄이고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된 파생상품 규제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완전판매에만 증권사 등이 펀드를 판

매하면서 원금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주가 폭락이 이어지며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면서 나타난 펀드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의 타깃이 되고 있다. 우리증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적합성준수 투자권유시스템을 시행하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도입한데 이어 상품교육인증시스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증권도 불완전 판매방지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부터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고객을 가장해 상품을 구입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시행, 영업직 직원들의 투자 권유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위해 WM영업혁신부를 신설,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교보증권 등도 불완전판매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성장률 2%대 추락?

IMF 하향 전망 ... 李 대통령도 3% 아래로 낮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2%대로 추락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아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말했다. 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IMF가 당초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5%로 내다봤지만 앞으로 조금씩 낮춰 3% 이하로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IMF가 한국의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주체도 아니고 전망 자체의 정확성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비교적 탄탄한 데이터를 토대로 매년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국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IMF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IMF는 올해 6월 한국의 내년 성

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했다가 지난달 초 이를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앞으로 IMF가 최소한 0.5%포인트 이상 더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8~5.2%로 예상했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의 수치지만, IMF의 수정 전망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이 일제히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신흥시장국들도 동반부진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IMF는 10월에 이미 발표했던 세계경제 전망을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수정, 주요 선진국들의 내년 성장률을 일제히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 사장단 인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4개 계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사장단 인사를 오는 12월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김호타이어 김병추 부사장이 영업담당 사장으로 ▲금호개발사 김창규 대표이사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금호건설 한이수 부사장은 사장 승진과 함께 금호에스티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장단 인사에 이어 12월1일자로 임원 인사, 내년 1월 1일자로 부장급 이하 직원 순으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윤영두 사장〉	〈김병추 사장〉
〈김창규 사장〉	〈한이수 사장〉

美 악재 맥뚫춘 코스피

닷새 연속 하락 ... 환율 1400선 돌파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17일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선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 경기부양정책 기대감이 교차하며 급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 기관의 매물이 나오며 지난주말 대비 9.94포인트(0.91%) 내린 1,078.32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2.47포인트(0.78%) 내린 314.98로 마감했다. 주가 약세의 영향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9.80원 오른 1,409.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월드뷰페	[예약실/조리/연회관리/행사기획]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251-7800
햇불	상품 인출고 현황 및 재고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0	062-375-5998
A+ 과학나리 광주지점	초등 과학담당 실험지도 교사	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20	062-973-6445
진은산업	제품포장 및 적재 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1	062-601-6169
인원리즈광주지사	정규직 경리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11/21	062-366-3909
이앤T	[SKT/연봉2400만원] 114 인바운드 상담원(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11/22	062-350-6333
씨노노프	[광주]씨노노프 영업팀 경력 및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4	02-458-2314
씨이디스	웹프로그래밍 개발(JAVA, jsp)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1/24	062-514-4740
에이치아이코리아	영업관리직(경력/학군장교 우대)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4	062-944-7676
에네스건설	건설인전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4	062-572-5500
이칭하	정규직 회계팀 경력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24	062-222-6675
성우하이텍	시험실자동화 분야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25	062-956-8145
혁신엔지니어링	cad/cam 3d모델링, 기술지원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62-611-59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